

尹, 오늘 2주년 회견...채상병·김여사 특검 입장 밝힌다

대국민 메시지 발표 이어 주제 제한 없이 1시간 정도 질문 받아
1인 25만원 지원·외과대학 갈등·총리 인선 등 현안 거론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국정 기초 전환에 나선 가운데 여는 이번 회견에서 '소통'과 '협치'를 부각하고, 남은 임기 3년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으로 8일 전해졌다. 회견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답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약 20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임기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힌다.

특히 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 과제 완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취재진으로부터 주제 제한 없이 약 1시간 가량 질문을 받는다.

최근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가장 민감한 현안들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직접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순직 해병 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외과대학 증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통과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법리상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결과가 나온 뒤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여권에서 거론된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1월 KBS 신년 대담에서 한 언급보다 얼마나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 당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좀 아쉬웠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은 해당 수사에 우선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민정수석실 부활도 회견에서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수석실 복원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김주현 신임 정무수석 등 검찰 출신 인사들로 민정수석실이 구성된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 외과대학 증원 관련 의정 갈등, 국무총리 후임 인선 등에 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포함해 1시간 이상 생중계되는 이번 회견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전날 민정수석실 복원을 브리핑룸에서 직접 발표한 윤 대통령은 이날은 공식 일정 없이 회견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좌), 검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기 마지막날인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당권주자들 “당권·대권 분리 규정 손봐야”

‘당 대표가 대권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 물러나야’
를 개정 여부 의견 수렴 나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일부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를 개정 여부를 두고 의견 수렴을 나서는 만큼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함께 논의해볼자는 주장이다.

안철수 의원은 8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차기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지방선거도 지휘 못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대표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대권에도 도전할 수 없고 걸림돌이 되는데, 굳이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제한해야 하나 싶다"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

다.

의평을 요구한 한 당권주자는 "(주요 정치인 이) 대표를 맡아 인물 자체를 키우는 구조가 되어 하는데 오히려 빨리 그만두게 하는 것은 당의 손해"라며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 '대선 1년 전 사퇴'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다른 주자 역시 "1년 6개월은 너무 길다"며 "규정이 완화되면 많은 후보가 나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면 7~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는 대선(2027년 3월 3일)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 이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기 2년을 못 채운 1년여 짜리 대표직에 그치는 셈이다.

따라서 대권까지 염두에 두는 당권주자들은 당헌 개정을 통해 대표직 수행 기간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권성동·권영세·김태호·안철수

의원,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도 분류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권·대권 분리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당선인을 상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개정 여부를 비대위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2005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 당헌으로 확정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대표를 계속 맡을 경우 2007년 12월 대권 도전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규정이 신설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국힘 이철규 “전대, 당원투표 100% 대표 선출 규정 그대로 적용”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8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를 개정 문제와 관련해 "선출권 권력, 정당성 있는 권력이 이 제도를 바꾸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당원 뜻에 따라 선출된 당 지도부가 당직자의 선출 규정, 그다음에 공직 후보자의 공천 경선 규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원투표 100%'인 대표 선출 규정을 이번 전대에는 그대로 적용하고, 향후 어떻게 손볼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아닌,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선출될 지도부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

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번에 원내대표(도전)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거에는,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우리가 선거 결과에 느낀 책임감이 있다"며 "당과 국민을 위해 더 정치적 기여를 하고 싶은 욕망을 접은 배경은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는 "선거는당이 지르는 것"이라며 "무조건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대통령이 잘못했다, 용산이 잘못했다고 프레임을 짜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